

## 고려해운

상반기 결산 워크숍 개최

고려해운은 7월 15일부터 16일까지 충남 무장보 비체펠리스에서 상반기 결산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지방지점 및 사무소 인원을 포함한 팀장급 이상 임직원 30명이 참가해 '수익성 개선 및 하반기 전략수립'이라는 제목 아래 상반기 실적에 대한 회고와 하반기 목표 달성 방안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각 임원과 팀장들이 직접 주제에 맞는 자료를 준비해 발표를 하였고 참석자들은 활발한 토론을 통해 고유가 시대에 따른 회사의 수익성과 항로별 채산성 향상 및 비용절감을 위한 전사적 대응 방안을 수립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 대우로지스틱스

기업 회생절차 졸업

회생절차(법정관리)를 조기졸업한 대우로지스틱스(대표 안용남)가 90%에 가까운 채무변제를 실행하면서 사실상 정상화됐다는 분석이다.

대우로지스틱스는 "MV Crystal Ocean' 호는 6월 18일 미국 텍사스 브라운스빌지방법원에 22만5,000달러를 공탁하고 MV Crystal Ocean의 역류를 풀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대우로지스틱스는 'MV Ocean Flower'의 경우 부당한 역류라고 판단, 지난 7월 6일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 파산부의 2009년 10월 21일자 Stay Order(국내 회생절차의 미국 법원의 승인결정문)에 반하는 부당한 역류임을 주장했고, 미국 루이지애나 동부지방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공탁한 250만달러를 대우로지스틱스에 반환했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7월 30일까지 대부분의 채무를 변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대한통운

하반기 전략경영 워크숍 개최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 기자재 지원



대한통운(사장 이원태)이 7월 15일~16일 이틀간 경기도 기흥에 위치한 대한통운인력개발원에서 이원태 사장과 임원, 지사장, 팀장 등 임직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1년도 하반기 전략경영 워크숍'을 개최했다.

대한통운은 반기마다 개최되는 이번 전략경영 워크숍을 통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현안을 점검하는 한편, 프로세스 개선과 우수 경영사례 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원태 사장은 "포항 영일만 신항 운영사 선정 등 상반기에 목표했던 항만 확보계획을 100% 달성한 저력을 살려 지속적인 인프라 확충을 통해 글로벌 자산형 물류기업으로 도약하자"고 역설했다. 또 올해 경영방침인 '글로벌 표준화'의 구현을 위해 프로세스 개선, 사업역량 강화, 인재개발, 상생경영에 힘쓰고, '스마트 물류 리더'로서 물류산업 발전에 앞장설 것을 주문했다.

특히 최근 진행 중인 대주주 변경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물류의 효시이자, 대표 물류기업인 대한통운이 80년 역사를 넘어 영속기업으로 거듭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워크숍에서는 스마트 시대의 외부 환경과 고객 니즈에 부응하기 위해 의학박사이자 IT전문가인 정지훈 관동의대 융합의학과 교수 겸 IT융합연구소장을 초청해 모바일 혁명과 소셜 네

트위크를 주제로 특강을 실시하기도 했다.

한편, 대한통운이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위해 7월 27일 서울 구로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LCD TV등 교육용 기자재를 기증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영환 성공회대학교 부총장을 비롯하여 다문화가족 및 관계자들이 참석하였으며 서재환 대한통운 부사장(사회공헌실천단장)이 LCD TV, 에어컨, 빔 프로젝트, 노트북 등의 기자재를 지원센터에 전달했다.

서단장은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학습하고 미래의 꿈을 이루는데 도움을 주고자 지원하게 됐다”고 이번 행사의 의의를 밝혔다.

한편 대한통운은 지난해부터 성공회대학교와 함께 구로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레인보우 스퀘어’이라는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 프로그램을 후원하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왔다.

## SK해운

1,200억원 규모 장기운송계약  
선박관리자회사 설립



SK해운(사장 황규호)이 한국중부발전과 총 1,200억원 규모의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SK해운은 향후 10년간 중부발전이 사용하는 1,100만 톤의 유연탄을 실어 나르게 된다.

SK해운은 7월 11일 코엑스인터컨티넨탈호텔에

서 남인석 중부발전 사장과 황규호 SK해운 사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사간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SK해운은 오는 2011년 4분기부터 2021년 말까지 10년간 연간 110만톤 씩 총 1,100만 톤에 달하는 유연탄을 호주, 남아프리카공화국, 캐나다 등에서 한국으로 운송하게 된다. 이를 위해 SK해운은 케이프사이즈(Capesize)급 벌크선 1척을 투입할 계획이다.

SK해운은 중부발전과의 이번 계약으로 연간 110억 원 이상, 10년간 1,200억 원 규모의 신규 매출액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SK해운은 7월 1일 선박관리 전문회사인 SK에스엠을 설립하고 본격적으로 선박관리업에 진출했다.

SK해운은 점차 전문화·대규모화돼가는 선박관리업의 글로벌 트렌드에 적극 부응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과 전문성을 갖춘 선박관리회사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SK에스엠을 설립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SK에스엠의 자본금은 5억원이며 부산에 본사를 두고 초대 대표이사는 SK해운에서 해사부문을 이끌어 왔던 김기일 전무가 맡았다.

SK에스엠은 우선 SK해운이 보유한 총 40여 척의 선박을 대상으로 선박관리를 시작하게 되며 모회사인 SK해운의 선대 확장 계획에 따라 가까운 장래에 관리 선박 규모가 대폭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SK해운의 황규호 사장은 “지난 30여년간 SK해운이 탱커, 벌크선, 가스선 등의 선박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축적해 온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실력을 인정받는 회사가 될 수 있을 것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 STX팬오션

연차보고서, 국제대회 금상수상



STX 팬오션(회장 이종철)의 2010년 연차보고서인 '정상을 향한 항해(Charting The Routes To The TOP)'가 미국 커뮤니케이션연맹(LACP)에서 주최하는 국제 연차보고서 경연대회인 '2010 비전 어워드(Vision Awards)'에서 운송·물류 부문 금상을 수상했다고 7월 14일 밝혔다.

이는 2010년 대회에서 2009년 연차보고서 '지속성장의 길(The Routes to Sustainable Growth)'이 '운송-물류 부문' 금상과 'CEO 메시지 부문' 금상을 받은 데 이어 연이은 수상을 달성한 것이다.

STX팬오션은 이번 대회에 전 세계 25개국 5,000여 기업들이 참여하면서 역대 최대 규모의 치열한 경쟁을 벌인 가운데 금상 수상의 영광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디자인의 창의성은 물론 메시지 전달의 우수성, 재무데이터의 효과적인 전달 등 모든 평가항목에서 고른 호평을 받으며 97점(100점 만점)을 획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LACP측 관계자는 총평을 통해 "STX팬오션의 경우 IFRS 기준 감사보고서의 수록, 상세한 재무리뷰 등 주주들에 대한 재무성과 전달에 대한 노력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전했다.

미국 커뮤니케이션연맹(LACP: League of

American Communications Professionals)은 세계적 권위의 마케팅 조사기관으로서 2001년부터 매년 포춘(Fortune) 500에 속한 기업들을 포함 전 세계 유수한 기업들의 연차보고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등 IR 및 홍보 커뮤니케이션 자료에 대한 경쟁력을 조사해 발표한다.

이 중 비전 어워드(Vision Award)를 통해서 세계적인 작가, 디자이너, 기업체 재무담당자와 애널리스트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평가를 거쳐 출품되는 간행물의 내용 및 디자인의 순위를 매겨 시상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한전, 현대건설, 기아자동차, 현대오일뱅크 등 각 업계를 대표하는 기업들이 순위에 올랐다.

한편 STX팬오션 뿐 아니라 STX그룹 계열사인 (주)STX, STX중공업 또한 대기업·지주사 부문, 기계·장비 부문에 참여하여 각각 은상과 동상을 수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 태영상선

부산-모지/이요미시마 서비스 신설

태영상선이 7월 10일 부터 공동운항 선사인 천경해운과 함께 모지/이요미시마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서비스는 부산(일)-모지(월)-이요미시마(수)-부산(금) 스케줄로 주 1항차 운항을 한다.

태영상선 측은 "이번 서비스 신설을 통해 한일 항로 화주에게 더욱 폭 넓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화주들의 만족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 항로 확대 및 운송 품질관리를 위한 노력을 계속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현재 태영상선은 7월 10일 신설된 서비스 외에도 한일 항로에서 케이힌, 이세완, 한신 지역 서비스를 운영 중이며 한중 항로에서는 청도, 상하이, 닝보, 신장 지역의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 한진해운

유럽항로 및 호주항로 운임인상  
해양리더 탐방대 1기 발족

한진해운(사장 김영민)이 유럽항로 및 호주항로의 운임을 8월부터 인상한다고 밝혔다.

아시아에서 북유럽 및 지중해로 향하는 운임은 8월 1일부터 인상된다. 일본을 제외한 극동 및 동남아시아(방글라데시 포함)발 북유럽 컨테이너 운임은 TEU당 250달러 그리고 FEU당 500달러 인상된다.

극동(일본제외) 및 동남아시아(방글라데시 포함)에서 지중해로 수송되는 컨테이너 운임은 TEU당 300달러 그리고 FEU당 600달러가 인상된다.

인도양(방글라데시 제외) 및 중동에서 북유럽 및 지중해로 수송되는 컨테이너 운임은 TEU당 200달러, FEU당 400달러가 인상된다. 한국발 호주항 화물 운임은 8월 15일부터 TEU당 300달러 FEU당 600달러가 인상된다

한편, 한진해운(사장 김영민)이 미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선발한 제 1기 글로벌 해양 리더 탐방대가 부산 중앙동 한진해운 사옥에서 발대식을 실시하고, 상해로 향하는 컨테이너선에 몸을 실었다.

이날 발대식에는 한진해운 홀딩스 조용민 대표가 참석해 130대 1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미래의 해양 리더로 선발된 탐방대원들의 첫걸음을 축하하며, 탐방기를 탐방대원 대표에게 전달하였다.

탐방대원들은 부산 중앙동에 위치한 운항훈련원에서 시뮬레이션 체험 후, 부산 신항에서 한진 포트퀵랑호에 승선, 상해항까지 승선체험을 실시한다.

7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10명의 탐방대원들은 6박 7일간 본 프로그램을 통해 컨테이너

선 승선, 세계 최대 양산항과 한진해운 아시아 지역본부 견학, 중국 해사대학생들과의 만남 등 다양한 교육 기회를 통하여 해운 산업의 중요성을 깨닫게 될 것이다.

한진해운은 앞으로도 매년 글로벌 해양 리더 탐방대를 선발하여 해운 산업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하고, 일반 대중들이 해운산업과 친숙해질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 실천해 나갈 예정이다.

## 현대상선

스마트 업무환경 구축

현대상선(대표 이석희)은 7월 18일 새로운 포털 및 통합커뮤니케이션을 오픈하고 아울러 모바일 오피스를 도입하는 등 '스마트 워킹' 환경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현대상선은 기존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데서 나아가 스마트하게 업무를 함으로써, 업무 효율성이 증대되고 의사소통이 활성화되는 등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새로 오픈한 포털을 살펴보면, 기존 메일 위주에서 '업무 커뮤니티', '뉴스채널', '소셜 토크', 'CEO블로그' 등 다양한 기능들이 새롭게 추가됐다.

우선, 포털 내 '업무 커뮤니티'라는 협업 공간이 생겨, 팀별로 만들어지는 문서나 자료를 온라인 전용공간에 게시하고 필요한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나 활용할 수 있다. 또한 회의, 고객 미팅 등 주요한 일정을 게시해 모든 팀원들이 참고하며, 팀장은 조직의 활동사항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다. 아울러 '뉴스채널'이 생성돼 사내소식, 해운뉴스, 해운·경제지표, 추가정보, 산업뉴스 등 업계 최신 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있다. 해운 관련 뉴스를 일일이 찾아다닐 필요 없이 포털 내 뉴스 채널에서 확인 가능하다.

또한 '통합 검색 기능'이 제공돼 포털의 웹 콘텐츠, 업무 커뮤니티의 문서와 정보들을 한 번에 검색 가능하며,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임직원끼리 실시간 오픈토크, 주제토크 등 활발한 대화와 토론을 진행할 수 있다.

특히, 새로운 포털에는 'CEO블로그'가 만들어져 CEO와 직원간 직접적인 소통 채널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와 함께, 컴퓨터를 전화기·사내메신저·아웃룩 2010 등과 결합한 '통합커뮤니케이션'을 구축해 임직원들의 업무 속도 및 편의성을 향상시켰다.

회상과 음성을 지원하는 사내메신저를 통해 세계 각국의 해외주재원 및 고객들과 같은 화면과 자료를 보며 실시간 온라인 회의를 할 수 있다. 또한 아웃룩·메신저가 전화기와 연동돼 있어 메일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클릭 한번으로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 수 있다. UC전화기는 상대방의 현재 상태를 표시해줘 통화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현대상선은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오피스'를 함께 도입했다. 스마트폰 앱(App)을 통해서 메일, 전자결재, 주소록 및 문서 검색, 회의실·장비 예약 등이 가능해 걸어 다니면서도 업무를 할 수 있게 됐다. 현대상선은 지난해 팀장급 이상 및 영업사원 240여명에게 블랙베리 스마트폰을 지급하고 업무에 활용하게 하는 등 업무의 스마트화를 적극 추진해왔다.

## 한국선급

노사 상생의 한 배를 타다

한국선급은 7월 14일과 15일 이틀간 한국선급 신 노사문화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선급의 특성을 살리고자 선상에서



개최되어 한배를 탄 공동운명체를 강조함으로써 그 의미를 더했으며, 노사 참석자들은 제주도 올레길을 걸으면서 상호 유대감을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2011년 첫 정기 노사 간의 만남인 이번 자리는 한국선급 오공균 회장과 이호승 한국선급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14일 목포-제주도행 여객선 선상에서 정기 상견례 및 노사화합을 위한 공동비전을 선포하고 비전 시행방안 창출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비전 선포식을 통하여 한국선급 노사는 상생과 화합의 노사문화 정착,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는 관계 형성, 그리고 협력적 노사관계 정착과 비전달성을 위한 상호간의 원활한 소통과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에 뜻을 모았다.

한국선급 오공균 회장은 "노사의 화합이 없이는 회사의 역량을 100% 발휘하기는 힘들다"고 말하며 "자연 속에서 노사가 격의없이 만난 오늘 이 자리는 한국선급 노사상생의 의지 및 상호신뢰를 재차 확인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선급 오공균 회장은 취임 이후 정기적으로 임원 및 노조대표 그리고 직원들이 모여 회사의 경영상태 및 주요 정책사항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등 상생경영을 펼쳐 2007년 이래 현재까지 4년 연속 무분규 임단협

타결을 이뤄오고 있다.

한편, 한국선급은 7월 4일(영국시간) 영국 런던 폭스힐 호텔에서 제8차 한국선급 유럽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유럽위원회는 의장인 피터 스위프트 박사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한국선급 현황, 항만국 통제(PSC) 실적, 아시아선급 연합회 의장선급으로서 한국선급 활동 및 한국조선시장의 향후 전망 등 업계의 주요 관심 현안에 대한 활발한 토의와 지구온난화가스(GHG), 해적퇴치 등 세계해사업계 내 주요 이슈들에 대한 상호 의견을 교환했다.

한국선급은 2004년부터 매년 영국 런던에서 개최해 오고 있는 한국선급 유럽위원회를 통하여 유럽 해운업계에 한국선급의 현황 및 기술력을 소개하고 국제 관심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한편 이날 유럽위원회에는 오공균 회장과 전영기 기술본부장, 마진섭 사업본부장 등 한국선급 관계자와 국제탱커선주연합회, 국제건화물선주협회, 발틱국제해운회의소, 선주상호보험조합 등 국제해사업계를 대표하는 멤버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 한국해기사협회

창립 57주년 기념식 개최

7월 29일 한국해기사협회는 창립 57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추형호 전 회장을 비롯하여 한국해양대학교 오거돈 총장,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우예종 청장, 부산항만공사 노기태 사장, 한국도선사협회 송정규 회장,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정형택 원장,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강신길 원장, 부산항발전협의회 박인호, 이승규 공동대표,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

이중환 위원장, 한국선박관리업협회 정영섭 회장, 협회 임원 등 해운관련 기관·업계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해기사의 권익신장과 협회발전에 크게 기여한 점을 평가해 해기사협회 전임 임원 (주)한진에스엠 허현철 부장 외 6명에게 감사패를 수여했으며 우리나라 해운산업 발전과 해기전승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여 정용화((주)한진에스엠) 선장의 27명의 모범해기사에게 공로패 및 부상을 수여했다. 한편 한국해기사협회는 1954년 8월 4일 해기사의 권익보호를 위해 67인의 해기사들이 모여 송고한 개척정신으로 창립, 57년 동안 우리나라 선박운항, 경영, 관리의 전문직업인인 해기사의 친목 단체로서 해기사의 권익신장과 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 한국해운조합

제 49주년 창립기념일 맞아



한국해운조합(이사장 이인수)은 창립기념일을 이틀 앞둔 7월 1일 서울 강서구 등촌동 사옥에서 기념행사를 열고 '사회공헌의 날 선포식'을 가졌다.

이인수 이사장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조합이 반세기에 가까운 역사를 거쳐 해운산업 대표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구성원 모두의 땀과 열정이었다"고 임직원의 노고를 치하

했다.

또한 “고객 기대 수준을 뛰어넘는 최고의 서비스를 통해 녹색물류 중심기관, 종합해상보험 전문기관, 해상안전관리 전문기관으로 성장하겠다”는 포부를 다졌다.

해운조합에 따르면 올해부터 매년 창립기념일을 ‘사회 공헌의 날’로 지정하고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된다.

올해 조합은 창립기념일 행사 이후 조합원사 및 임직원 가족의 헌혈증을 대한적십자사에 기부하였으며, 창립 49주년을 기념하는 49인 릴레이 헌혈을 진행했다. 또한 전국 15개 지역 본·지부 봉사 동아리별로 지역 노인복지센터 및 보육원을 방문하여 봉사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하고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나눔경영을 실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한국해운조합은 창립기념식 행사에서 해운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관기관 및 단체 인사 20명과 조합 장기근속직원 38명에 대해 이사장 감사장 및 공로패를 수여하고 전국 14개 지역 총 76개 업체 84명의 장기근속 선원에 대하여 회장 감사장을 수여했다.

## 해양소년단

제20회 국제청소년해양축제 실시

한국해양소년단연맹(총재 황규호)이 7월 23일 서울과 전라남도 여수 일원에서 5개국 31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20회 국제청소년해양축제를 실시했다.

한국해양소년단연맹이 주관하고 국토해양부와 SK해운이 후원한 이번 사업은 의전활동, 제22회 해양소년단 리가타, 견학활동 등의 주요활동으로 진행되었다.

의전활동으로는 환영식과 환송만찬으로 진행되었고, 제22회 해양소년단리가타에서는 물축구, 해상체험활동(모터보트, 세일링요트, 수상오토바이, 워터슬레이 등), 육상체험활동(천연염색, 천연비누, 버튼만들기 등)의 활동으로 진행되었고, 서울과 경기에서 진행된 견학활동으로는 롯데월드, 서울N타워, 남산골한옥마을, 인사동, 청와대 사랑채, 경복궁, DMZ, 한국민속촌을, 한국 전통악기 체험을 통해 한국을 배우는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해양소년단리가타에서 고등부 물축구 경기에 영국·캐나다·홍콩·중국·한국 대원 여자 5명, 남자5명 총 10명이 참가하여 2위에 입상하는 영예를 안기도하였다.

## 해양환경관리공단

PEMSEA와 양해각서 체결  
해양생태조사센터 본격 활동 개시



해양환경관리공단(이사장 곽인섭)은 국제기구인 동아시아해역 환경관리 협력기구와 기후변화 및 해양환경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7월 11일 부산 노보텔에서 체결했다고 밝혔다.

제4차 PEMSEA 총회 회기 중에 열린 이번 MOU 체결식에는 해양환경관리공단 곽인섭 이사장과 국토해양부 해양환경정책관 박광열 국장,

PEMSEA 라파엘 펠페추오 로틸라 사무국장 및 각국의 PEMSEA 대표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MOU 체결은 기후변화 적응과 기름 유출 대응, 해양보전·관리 등에 관한 협력 및 2012년 동아시아 해양회의 워크숍 공동개최 등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해양환경관리공단 관계자는 “이번 MOU를 통해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 PEMSEA와 협력관계를 구축함으로써 공단의 해양환경분야 국제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동아시아해역 환경관리 협력기구(PEMSEA)는 동아시아해역 대부분을 포함하는 유엔개발계획(UNDP)의 지역협력 프로그램으로 1994년에 결성됐다. 사무국은 필리핀 마닐라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아시아해역 환경개선을 위한 국가간 협력체제를 구축해 생태계의 보호 및 연안해양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해양환경관리공단이 7월18일, 해양환경관리공단 인천지사서 해양생태조사센터 개소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행사에는 국토해양부 해양환경정책관 박광열 국장과 해양환경관리공단 김현종 해양보전본부장 등 관계자 약 50여명이 참석했다.

해양생태조사센터는 우리나라 연안 및 근해에



서의 갯벌생태계 조사, 해양보호구역 모니터링, 해양생태계 특성조사 등과 같이 국토해양부에서 정한 조사사업 수행을 통해 정부의 해양생태계 관리를 위한 정책지원을 수행하고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한 다각적인 연구 사업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 경기평택항만공사

항만 2단계 개발사업 마무리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서정호)는 평택·당진항 2단계 개발사업이 7월 22일로 9년 10개월 만에 마무리되었다.

이번 2단계 사업으로 준공되는 항만시설은 20만톤급 철재부두와 자동차부두 등 모두 31선석 규모이며, 배후단지도 143만 제곱미터에 달한다. 이로써 평택·당진항은 총 53선석 대형접안시설을 보유하게 됐다.

2단계 사업이 준공됨에 따라 평택·당진항은 컨테이너는 연간 124만 TEU, 자동차는 120만대, 철광석은 18백만 톤을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수도권 중추항만의 위상을 갖추게 되었다.

이에 국토해양부는 접안시설과 함께 배후단지 조성으로 물동량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항만 주변의 자유무역지역에는 143만 제곱미터에 이르는 대규모 항만 배후물류단지가 조성되어 이미 12개의 국제적인 물류기업이 입주하여 고용창출은 물론 지역경제에도 이바지하고 있다”며 “또한 항만배후단지를 통해 물류산업의 집적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평택·당진항은 이번 2단계 사업의 완공으로 국제무역항으로 개항 한지 25년이라는 비교



적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작년에는 7,600만톤의 물동량을 처리하여 전국 5위 항만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 부산항만공사 부산 신항 출퇴근 셔틀버스 운행

부산항만공사(사장 노기태)는 7월 11일부터 부산도시철도 하단역과 강서구청역에서 신항까지 오가는 셔틀버스 2개 노선 운영을 실시하였다. 부산신항 근로자의 출·퇴근 교통 불편 및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하철역 연계 무료 셔틀버스 운영을 실시한 것이다.

부산시는 부산항만공사, 신항터미널운영사, 신항배후물류단지입주업체 등 4개 기관·업체와 함께 운영비의 25%를 분담해 부산신항 근로자 출·퇴근을 돕기 위해 무료 셔틀버스를 지하철 1·3호선과 연계해 2개 노선으로 제공한다.

제1노선은 지하철 하단역(3, 5번 출구 사이) ↔ 세산삼거리 ↔ 가주터널 ↔ 신항만이며, 제2노선은 강서구청역(1번 출구 앞) ↔ 서남다리 ↔ 경마장 ↔ 가주터널 ↔ 신항만으로, 각 노선별로 3대씩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일요일은 운행제외) 출근은 오전7시부터 노선별로 20분 간격으로 4회 운행되고, 퇴근은 오후 5시 10분부터 노선별로 6회 운행된다.

특히, 운행노선이 지하철역에서 신항까지 논스톱(Non-Stop)으로 운행됨으로써 회당 소요시간이 40분 정도로 지금까지 출·퇴근시간을 맞추지 못해 자가용을 이용하던 신항 근로자들이 많은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부산시측은 기대를 내비쳤다.

운영업체는 공개입찰을 통해 길따라고속관광(주)로 선정하고 오는 7월말 셔틀버스 운행 개통

식도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부산시 관계자는 “출·퇴근 무료셔틀버스 운행으로 부산신항 근로자들의 교통편이 한결 편리해 질 전망”이라며 “부산항만공사와 함께 운행 성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문제점 파악 및 개선을 통해 내년 운행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울산항만공사 백미 지원 행사 개최



울산항만공사(사장 이채익)는 7월 21일 오전 울산시자원봉사센터와 공동으로 지역내 소외계층 700세대에 쌀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인 '가가호호 천사백미(미) 나누기'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에 참가한 UPA 임직원들과 자원봉사센터 관계자 20여 명은 미리 준비한 백미를 700세대에 골고루 전달하기 위해 개별단위로 쌀을 나눠 담고 기부 받은 다른 물품들과 함께 포장하는 등의 자원봉사를 실시했다.

이날 포장된 쌀과 물품들은 다른 자원봉사자들에 의해 소외계층 700세대에 개별 배달될 예정이다.

## 인천항만공사

경영평가 대응 임직원 워크숍 개최



인천항만공사(사장 서정호)는 올해 '경영평가 대응을 위한 임직원 워크숍'을 인천항만공사 임직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7월 20일 개최했다.

이번에 열린 워크숍은 2011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인 3개 범주 10개 지표에 대한 경영개선 계획의 발표, 우수기관 경영평가 사례분석 및 대응전략 발표 및 강의로 진행됐다.

이날 열린 워크숍에서는 각 팀장과 직원들이 직접 지표 관리계획을 발표하고 참석자들이 활발한 토론을 벌이는 등 경영평가 우수실적 달성을 위한 의지를 다졌다.

이날 워크숍을 주재한 인천항만공사 김종태 사장은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는 국민들이 주신 점수라고 생각하고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며,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전략 수립은 물론, 다양한 사업 발굴과 체계적인 경영 효율화로 우수 성적을 내도록 노력을 다하자"고 강조했다.

한편, 기획재정부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는 공공기관의 전년도 경영실적을 계획-집행-성과 측면에서 평가하여 공공기관의 경영효율성 및 책임있는 경영을 유도하는 제도로 1984년도에 최초 실시되어 28년째 운영 중이다. 인천항만공사의 지난 평가결과는 2009년도 'D' 등급에서 2010년도 'C' 등급으로 한 단계 상승한 바 있다.

## 한국해양대학교

해군과 해양군사대학 운영 협약 체결

한국해양대학교(총장 오거돈)는 해군과 7월 15일 오전 학내 본부 5층 국제회의실에서 '학·군 교류 및 해양군사대학 설치·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한국해양대와 해군이 장기복무 현역 군인 및 군무원의 전문지식과 전투능력 향상을 위해 내년 3월부터 설치·운영하는 해양군사대학에 대해 상호 협의할 목적으로 이뤄졌다.

양 기관은 이날 학·군 협동 프로그램 운영, 교육 시설 및 기자재의 공동 활용, 학생 및 입학조건, 학비 감면, 학점 인정 사항 △ 강사 지원 등 인적자원의 상호 교류 △ 해군 예비역 출신의 교원 채용 등에 대해 협약했다.

'해양군사대학'은 단과대학 형태로 개설되는 국내 최초의 계약학과이다. 한국해양대와 해군이 합동운영위원회를 조직하여 운영되며 학사과정의 해양군사학부(정원 40명·해양구조전공, 항해기관운용전공)와 석·박사 과정의 대학원(정원 각10명·해양군사학과)으로 구성된다. 정원은 향후 양기관의 협의를 통해 더 확대될 수 있다.

예비역 해군제독을 해양군사대학장으로 두고 해양대 전임교원과 해군, 민간기관 전문가로 이뤄진 강사진이 진해 해군기술행정학교 등에서 강의할 계획이다. 학생은 매년 해군의 추천과 한국해양대의 심의를 거쳐 선발된 군 위탁생으로, 학사과정에 부사관 및 군무원, 석사과정에 장교 및 군무원, 박사과정에 장교가 입학하도록 한다.

한편 해양대학교는 해양군사대학이 신설되면 수중기술학과는 해양군사학부로 변경되며 학군연구소는 산하 기관으로서 연구 프로젝트 수주 증대를 위해 더욱 힘을 예정이라고 밝혔다.